

20세기 1571

2563 | 2019 8



대한불교조계종 계림문화재단

五臺山의정서

칠석기도 _ 삼성각

칠석은 가족의 수명장수와 자손들의 번성을 위해
치성광여래 부처님과 일광·월광 보살님께 소원을 빌었던 날입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입 재 佛紀 2563(2019). 8. 1 (음 7. 1)

회 향 佛紀 2563(2019). 8. 7 (음 7. 7)

동참금 50,000원

2020 수능백일기도 _ 적광전

2020 수능백일 학업성취기도는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한 가족의 힘찬 응원이며 따뜻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학업성취를 이루시기를 발원합니다.

입 재 佛紀 2563(2019). 8. 7 (음 7. 7)

회 향 佛紀 2563(2019). 11. 14 (음 10. 18)

동참금 100,000원

우란분절(백중)기도

_기도 수광전, 회향 적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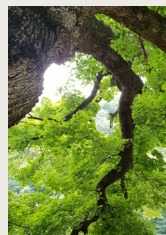
백중, 우란분절 49일 동안 지장천도 기도와 함께 7일마다 제를 올려
여러 영가님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선망부도형제와
인연 영가님들을 천도하시기 바랍니다.

회 향 佛紀 2563(2019). 8. 15 (음 7. 15)

불기
2563년 8

Contents

- 02 주지 스님 법문
마음이 부처를 만듭니다
- 06 탄허스님 방산굴 법어
대중법어 大衆法語
- 道の 根本은 正道
- 09 오대산을 가다 ⑦
성덕왕과 인연 깊은 상원사동종
| 자현스님
- 15 오대산 구전동화
동심 童心으로 걸으렴
- 선재길 ② | 정진희
- 24 화엄오만진신 조성 불사 권선문
- 32 사중소식



표지사진 고로쇠나무
(월정사 청류다원)

발행일 佛紀2563(2019)년 7월 31일
발행인 퇴우 정념
주간 자현
편집 디자인 daboDESIGN
출력인쇄 (주)에드삼컴퍼니
발행처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8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oljeongsa.org
등록번호 평창, 라 00004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월정사의 서면화된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부처를 만듭니다

퇴우 정념 스님

반갑습니다.

태풍이 상륙하자마자 소멸했지만, 그래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국제관계를 비롯해 남북문제와 경제 상황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전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탄허스님을 매우 존경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스님의 지혜를 빌려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요즘 일본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국론이 분열되면 우리나라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큰 흐름을 바라보면서 잠시 이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사실은 한마음의 문제로 불교에서는 항상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한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곤 합니다. 오늘 저녁 기도도 마음을 일심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병통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이, 다른 한편으로는 선근공덕을 지어내고 부처님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귀·축생·아수라를 만들고, 지옥과 천상도 만들어 냅니다. 또 성문·연각·보살·부처님이라는 성인의 세계 역시 이 마음이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심조제여래心造諸如來라, 마음이 부처님도 만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항상 병통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곳곳에 삼독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색성향미촉법이라는 육경을 만나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일으켜 그 대상까지 함께 불태워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의 불길이 세상을 불태우고 있으니, 세상의 불길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의 불을 먼저 꺼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거칠어지면 가정도 흔들리고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가정도 평온해집니다. 결국 ‘나’라는 상이 모든 벽을 만들어 소통을 방해한 것입니다.

병종하래病從何來오? 병종업생病從業生이니라.

업종하래業從何來오? 업종망생業從妄生이니라

망종하래妄從何來오? 망종심생妄從心生이니라.

심종하래心從何來오? 심본무생心本無生이니라.

심본무생心本無生이어나, 병종하래病從何來오!

병은 어디에서 왔는가? 병은 업에서 생겨났다. 병이라는 게 우리 중생의 업과 우리 국민이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지어온 사회현상, 역사현상, 문명의 현상이 모두 공업共業화되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개인이 지어온 업 때문에 자기 인생의 팔자와 운명에 지배당하고 세상을 업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별업別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도 모두 달라서 꽃이라는 같은 대상을 보면서도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는 등 갖은 분별을 하곤 합니다. 나는 튤립이 좋아, 나는 매화꽃이 좋아, 나는 장미가 좋아, 나는 호박꽃은 싫어, 하는데 모두 꽃으로 잘 바라보면 호박꽃은 호박꽃대로, 튤립은 튤립대로 좋고, 가시가 있는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꽃일 뿐입니다. 이렇게 두루 보면 모든 것이 어울려서 세상이 아름다운데 우리는 자꾸만 차별의 세계를 만들어 내

곤 합니다. 그런데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꽃이 어울려야 정말 아름다운 꽃밭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하늘의 별도 모두 똑같다면 아름다운 별빛이 되겠습니까? 푸른 하늘에 크고 작은 별들이 섞여서 반짝반짝하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기 업력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분별로서 바라보는 게 우리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병이 전생의 업에서 온 것은 알았는데 업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망상, 즉 허망한 마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망상심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바로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걸 살펴보니, 마음은 본래 무상이라 일어나는 곳이 없어, 마음이 있다 하는데 마음 일어난 자리를 살펴보니가 당처가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심본무생이라, 즉 마음이 일어난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잘못 보고 내 업성에 의해 일어난 현상임을 바로 알아 모든 병을 지혜롭게 치료하면 됩니다. 다 녹여내고 걷어내서 전화轉化시켜 버리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무자성종심기 罪無自性從心起 심약멸시죄역망 心若滅是罪亦忘

죄망심멸양구공 罪忘心滅兩俱空 시즉명위진참회 是卽名爲眞懺悔

법문할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천수경』 부분입니다. 죄라는 건 마음이 일어나서 생긴 것으로 무자성이라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멸하면 죄도 또한 함께 멸해진다. 죄와 마음을 함께 몰록 비워버리면 그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나 남의 험담을 하는데,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열 가지 죄, 즉 십악 중에서 네 가지가 입으로 지은 죄입니다. 구시지

화문口是之禍門이라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 하였으니, 입을 꼭 다물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에는 선원 큰방에 삼함三緘, 오관五觀이라 붙여 놓고 경계의 말로 삼습니다. 다언多言은 군자의 병이라,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말은 화살과 같아서 쏘아 버리면 거두어들이 수 없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껴서 씁니다. 설시참신도舌是斬身刀라, 혀는 몸을 자르는 칼과 같아 말을 잘못하면 큰 화가 닥치니 혀끝을 잘 펴고 깊게 감추어야 가는 곳마다 편안해지는 법입니다.

요즘은 미디어 시대라, 전부 말로서 소통하다 보니 정치인들도 미디어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못매를 맞는 일이 허다합니다. 말의 불길은 성불의 종자까지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모든 큰 문제가 작은 말의 실수로 생겨나니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신구의 삼업을 맑게 하고, 선근으로 공덕을 짓는데 써야지 이걸 잘못 쓰게 되면 결국 자기의 업력을 쌓고, 또 다른 색깔의 안경을 써서 세상을 그릇되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흔히 운명이나 팔자라고도 하지만, 실체도 알고 보면 전부 빈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요연瞭然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매달 모여서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을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밝혀 일심을 만들어 내기 위함입니다. 번뇌 망상은 우리의 근본 마음 자리를 흐리게 하는 먹구름과 같기에 먹구름을 소멸하고 업장을 걷어내기 위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극하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상이 사라져 일심이 되고 일념통천一念通天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늘과도 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구소망을 여의 성취하시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大衆法語

道の根本은 正道

도^道의 근본이란 바른 것이다. 도란 진리의 대명사이다. 한 마디로 길을 가리킨 것이다. 길을 걷되 길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왜냐 하면 길이란 오솔길이든 외진 길이든 길은 길이다. 그런데 길 밖으로 빠져 나가면 필경엔 진흙구덩이와 가시밭과 어둠 속으로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다. 탈선이란 결국 괴로운 결과를 가져옴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길은 또 하나의 생명줄이다. 생명을 아끼려거든 자기 나름대로 선택한 길을 꾸준히 걷는 강인한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필경엔 구경의 목적지인 안심입명처(安心立命處, 적멸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옛 말씀에 도를 잃으면 덕^德이라도 갖추어야 하고, 덕을 잃으면 인^仁이라도 베풀 줄 알아야 하며, 인을 잃으면 의^義라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의를 잃으면 예^禮라도 차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다. 그런데 요즘엔 예^禮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률학이 나오게 된 것이다. 자의에 의한 길을 걷는 나그네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타의에 의한 방랑자가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15회

탄허대종사 선사 함양 전국회호대회



물에 담긴 지혜와 먹이 간직한 능엄선정을 끌어내어 실상법신^{實狀法身}인 문자는 서사^{書寫}하는 선사의 세계로 서도인을 초대합니다.

회호대회 부문

일 시 불기 2563년(2019) 10월 13일(일) 오전 11:00
장 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월정사 경내(대법륜전)
부 문 한글 · 한문 · 문인화 · 캘리그래피
규 격 서예 · 문인화 - 반절지
명 제 부문별 일정만 택일하여 회호(회호명제 : 불교에 관한 자유내용)
접수기간 2019년 10월 7일(월) ~ 10월 11일(금) 17시까지
접수방법 월정사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 (전화번호 기재 요망)
참가원서는 월정사 홈페이지(woljeongsa.org)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참 가 비 20,000원
입금은행 - 농협 313065-55-000751 / 예금주 월정사 (참가자 본인 명의로 송금)

사경공모 부문

불교 경전 중에서 자유롭게 작품하여 반절지 이내 미표구 상태로 접수
(접수비 및 기간은 위와 동일하며 회호대회와 함께 심사함)

시 상	부 문	한 글	한 문	문인화	비 고
	대 상		1명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1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5명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사경부문 우수		3명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특선, 입선		○○명		상장

접 수 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월정사 회호대회 담당자 앞(우:25318)
문 의 H.P : 010-8703-4216(운영위원장 삼허 박병선)
Tel : 033-339-6800 / Fax : 033-332-6915
전 시 별도의 시상식과 전시는 하지 않으며, 월정사 홈페이지에 게시 후 작품집으로 대신하고 모든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상장과 작품집은 우편발송하고 상금은 계좌이체 합니다.)

주최 : 오대산 불교문화 발전위원회



문수재일 지혜법회

일시. 매월 음력 4일, 09시 30분 장소. 상원사 문수전

[서울] 1호차 경부터미널 13번 출구 6시
선법성 010-9281-6470

2호차 조계사앞 5시 30분
현명혜 010-8862-3838

3호차 강남고속터미널 6시(뉴코아사거리 LG주유소)
복덕행 010-8866-4629

4호차 강서구청 하이웨이 주유소앞 5시 20분
설산향 010-2774-8579

[인천] 구시민회관 5시30분
중동IC 5시 50분
하혜경 010-8749-5209

[수원] 수원-북문농협 5시 50분
대지행 010-8712-1086

[안양] 대동서점 건너편 6시
이화경 010-8376-7870

*예약문의는 각 지역별 팀장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원사에서는 버스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주지 해량스님과
1000일 동안 함께 하는 **금강경 독송**

일시. 매일 12시 30분 ~ 13시 30분 (초하루와 문수재일에는 법회에서 독송)
장소. 상원사 문수전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211-14
종무소 033. 332. 6666, 6060 팩스 033. 333. 5833
문수성지 광명도량 오대산 상원사



성덕왕과 인연 깊은 상원사동종

자현 스님

① 통일신라 최고의 명품, 한국종

고려시대에는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고려불화와 고려청자 그리고 나전칠기가 있었다. 이 3가지는 동시대를 넘어서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명품으로 인정받는 물건들이다. 그러나 통일신라에도, 전 세계를 놀래 킬 만한 최고의 명품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신라종이다.

동아시아의 종은 중국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 종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킨 것은 바로 신라인들이었다. 마치 도자기를 발명한 것은 중국이지만, 그것을 아름다운 미감으로 승화시킨 것은 고려인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신라종 특유의 아름다운 음과 장중한 소리는, 오늘날까지도 세계인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은 한국종이라고 하는 별도의 학명으로 불리게 된다. 즉 한국만의 특수한 종인 것이다.

동아시아의 종은 안에서 추가 움직여 소리를 내는, 나팔모양의 서양종과는 달리 밖에서 타종하는 방식을 취한다. 여기에 한국 종은 위쪽에 한 마리의 용으로 된 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종의 아래쪽은 마치 향아리처럼

럼 오목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소리가 웅장하면서도 길게 울리는 여운을 가지게 된다.

② 최고最古의 종과 최고最高의 종

우리는 흔히 한국종의 대표하면 에밀레종을 떠올리곤 한다. 에밀레종이라는 말은 속칭이며, 정식명칭은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이다. 성덕대왕은 성덕왕(재위 702~737) 즉 오대산에서 수행도중 국왕이 된 효명이다. 그러나 이 종은 성덕왕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사실은 제33대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 아들인 제35대 경덕왕(재위 742~765)이 주조한 것이다. 즉 성덕왕대에 제작된 종이 아니다.

이에 비해 국보 제36호인 상원사동종은, 725년 즉 성덕왕 24년에 조성된 종이다. 즉 성덕왕대의 종인 것이다. 즉 두 종 모두 성덕왕인 효명과 관련되지만, 연대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서, 보통 성덕대왕신종을 최고最高의 종이라고 하고, 상원사동종을 최고最古의 종이라고 한다.

③ 상원사동종의 특징



상원사동종은 성덕대왕신종과 비교해보면 특징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비천상飛天像 즉 날아 내려오는 천사상天使像이 둘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덕대왕신종이 하나인 것과 차이가 있다. 둘째는 유곽 안의 돌기인 유두乳頭 즉 젖꼭지가 튀어나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성덕대왕신종의 편편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사동종은 여성 젖꼭지인데 반해, 성덕대왕신종은 남성 젖꼭지라고 말해지곤 한다.

다음으로는 상원사동종만의 특징적인 면으로, 이 역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종의 위아래 테두리에 악기를 두른 주악상奏樂像이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종의 맨 위 쪽인 천판에 725년에 주조되었다는, “신라 성덕왕 24년 을축 3월 8일에 종이 완성되어 이를 기록한다”라는 절대 연대가 음각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상원사동종에 새겨진 두 구의 비천상에는, 서양의 하프가 중국문화에서 변형된 공후笙篳가 표현되어 있으며, 또 불면 봉황의 소리가 난다는 생황笙簧이 부조되어 있다. 이외에도 비천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태를 표현한 천의天衣 즉 선녀 옷에 대한 표현은, 꽃이 핀 듯한 자태로 처리되어 있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연출하고 있다.



④ 떨어진 젖꼭지에 얹힌 사연

상원사동종은 조선 초기 송유역불정책으로 많은 사찰들이 사라지면서, 절은 사라지고 종만이 안동 문루門樓로 옮겨지게 된다. 즉 사찰의 범종이 안동의 문루에서, 성문을 여닫는 시간을 알리는 종으로 재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종이 멀고 먼 상원사까지 오게 되는 것은 세조의 상원사 중창과 관련된다. 당시 조선에는 이미 이와 같은 최고의 종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 그러므로 새롭게 종을 주조하는 대신, 전시대의 최고 종을 옮겨오는 방향으로 일이 결정 난 것이다. 이렇게 수소문된 것이 바로 안동



문루의 종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전설이 탄생하게 된다. 종이 안동을 떠나기 싫어 미동도 않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상원사동종의 유두 하나를 떼어서 안동에 내려놓자, 종이 움직여 상원사까지 오게 된다. 실제로 이 전설을 반영하듯, 현재 상원사동종의 유두 한 개는 파손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바로 옆쪽에 상원사동종을 그대로 복원해서 예불 때 사용하고 있는 종과 비교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안동과 상원사는 거리가 멀고 길이 험하기 때문에, 종을 옮기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이다. 과거에 종을 옮기는 것은, 쌀가마니로 감아서 새끼줄로 묶어 달구지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고개나 산에서 종을 떨어트려, 돌출부인 유두에 파손이 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후대 상원사종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과 더불어 전설로 승화된 것이다. 전설이란 때로 이렇게 만들어지곤 한다.

안동과 상원사는 거리가 멀고 길이 험하기 때문에, 종을 옮기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이다. 과거에 종을 옮기는 것은, 쌀가마니로 감아서 새끼줄로 묶어 달구지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고개나 산에서 종을 떨어트려, 돌출부인 유두에 파손이 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후대 상원사종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과 더불어 전설로 승화된 것이다. 전설이란 때로 이렇게 만들어지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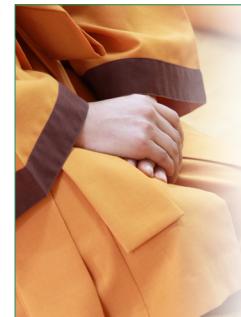
제6기 마음출가학교

월정사 출가학교!

나의 등불^{自燈明}을

스스로 환하게 밝히고 떠나는 인생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法燈明}입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1주일의 心 출가 체험

- 수행 기간 2019년 9월 2일 ~ 8일
- 합격 발표 출가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 입학 대상 17세 ~ 60세, 30명 (대중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
- 수행 경비 50만원
- 참가 신청 월정사 출가학교 홈페이지
- 참가 문의 월정사 출가학교 담당자 033. 339. 6777

자현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 교무국장, 조계종 교육이사리, 불교신문 논설위원, 울산 연평선원 원장, 월정사 부산포교원 원장,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등을 맡고 있다. 율장, 건축, 선불교, 한국 고대사 연구로 4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진 등재지에 120여 편의 논문을 수록했고, 3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제1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오대산 전국 디지털 사진 공모전

- 주제** 오대산의 길
길 없는 길, 길에서 나를 만나다
- 기간** 2019년 5월 5일(일) ~ 9월 9일(월)
- 장소** 오대산 (선재길, 전나무 숲길, 암자 길 등)
- 참가 자격** 제한 없음
- 출품수** 1인 3점까지
- 출품 규격** 500만 화소 이상 파일 형태(JPEG, BMP, GIF, PNG, 인터넷으로 제출), 스마트폰 촬영 사진 가능
- 사진 등록** 웹하드(www.webhard.co.kr)
ID : woljeongsa2 / password : 2019
- 참가비** 없음
- 접수 마감** 2019년 9월 9일 월요일
- 입상작 발표**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강원도민일보 지상 및 홈페이지(www.kado.net)
월정사 홈페이지(woljeong.org)
- 시상 내역** 대상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금상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 상장 및 상금 50만원
동상 - 상장 및 상금 30만원
입선 - 상장 및 기념품
- 문의** 월정사 (☎ 033-339-6800)
강원도민일보사 사진부 및 평창지사
(☎ 033-260-9280~3, 033-332-3388)

동심童心으로 걸으렴

선재길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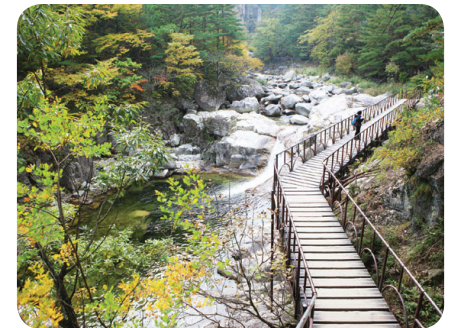
정진희

오대산 선재길에서 만나는 선재동자 이야기

여름 햇살이 내리쬐는 오대산 선재길에 오대산 할머니와 걸으며 듣는 선재동자 이야기는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화엄경’ 안에 그런 스펙터클한 이야기가 숨어있을 줄이야!

수십 년 동안 총53명의 선지식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을까’ 하나만 고민했다는 선재동자!

“... 선재가 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몸을 파는 가난한 창녀도 있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었단다. 뱃사공도 있었고, 아름다운 여인도 있었고, 노인, 스님, 어린 아이, 땅의 신, 밤의 신, 허공의 신도 있었지. 물론 거룩한 보살도 계셨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행하며 만난 이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지.”



“어떻게요?”

“그 여행은 수십 년이 걸렸단다. 선지식들은 선재동자의 손을 잡고 자기가 깨달은 곳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들어가기도 하고, 생사의 기로 속에 선재동자를 밀어 넣기도 했단다. 어떤 때는 꼭 안아주기도 했고,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설법을 해주기도 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곳에 내가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있다고 생각했다는구나.”

할머니의 이야기보따리는 계속 됐어요.

“선재동자가 첫 번째와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누구라고 했었는지 기억하니?”

“네! 문수보살이요!”

“똑똑하구나, 우리 월명이~ 그럼, 두 번째 만난 분은 누구였을까?”

“두 번째...요? 해헛, 모르겠어요~”

“대부분 처음과 끝은 기억하기 쉽지만, 두 번째는 기억하기 힘든 것 같구나. 시작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같은 두 번째 말이지. 그럼 우리는 선재동자가 만난 선지식 중에 두 번째 선지식 이야기를 해볼까?”

“와, 그렇네요! 저도 두 번째 선지식이 궁금해요!”

두 번째를 기억해보자 - 선재동자가 만난 두 번째 선지식 ‘덕운 스님’



화엄경 입법계품

“선재동자가 만났던 두 번째 선지식은 덕운 스님이었단다. 화엄경에는 덕운비구(德雲比丘)라고 하지. 처음 만났던 문수동자가 ‘그렇게 부처님처럼 살고 싶으면,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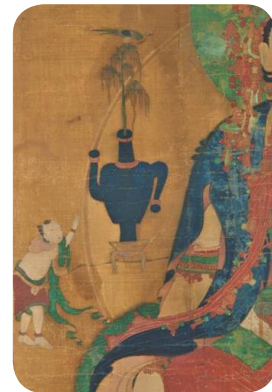
하니까 선지식들을 만나서 배우고, 뛰어넘어라. 그러려면 남쪽으로 가서 승낙국의 묘봉산에 사는 덕운 스님을 찾아라’ 라고 말했었던단다.

선재동자는 열심히 남쪽으로 남쪽으로 걸어갔는데 승낙국 묘봉산 꼭대기에 올라갔지만 덕운 스님이 안 보이는 게야. 일주일 동안 산속을 헤매면서 덕운 스님을 찾았는데, 웬 스님 한 분이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를 술렁~술렁~ 걸어 다니더라!”

“그분인가 봐요!”

“맞아. 선재동자가 얼른 뛰어가서 옆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나서 말했단다. ‘스님! 저는 질문이 있어서 찾아온 선재입니다. 제가 부처님처럼 살고 싶긴 한데요, 마음만 있고 어떻게 보살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스님이 상세히 알려주실 거라고 문수동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렇게 말하고 선재동자가 가만~히 대답을 기다렸지.

덕운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나도 고민이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보살이 되냐고 네가 물어봤지만 참 어려운 일이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보살이 되고 싶거나 중생을 교화하고 구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 발심이 중요하단다. 왜냐하면 첫 발심은 믿음이 충만해야 하고, 그 믿음이 충만하면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 선재동자야,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처럼 깨닫고 부처님처럼 행하며 살고자 한다면 ‘믿음의 안목’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단다. 나 역시 청정한 믿음의 눈으로 지혜가 밝아졌을 뿐이란다. 그 덕분에 온갖 장애물에서 벗어났지.’”



조선시대 대표적 화사 의겸의
수월관음도 안의 동자
(1730년. 보물제1204호)



일본 대덕사에 있는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에 보이는 선재동자

“지혜가 밝아지는 믿음의 눈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호호, 선재동자도 월명이 너처럼 묻지 않았을까 싶구나.”

“덕운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고, 공양을 올리고, 일할 때에도, 누워있을 때도, 잠들었을 때에도 매 순간 부처님을 생각하고 정법을 지켰단다. 나는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는

걸! 그렇게 해서 21개의 염불삼매문을 성취했고, 보현보살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지.’“

“그럼 선재동자도 그렇게 하면 부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덕운 스님은 ‘선재야, 하지만 수많은 대보살들의 끝없는 지혜와 청정한 수행의 문을 내가 다 안다고는 말할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덕운 스님은 엄청 겸손하신 분이었네요~”

“덕운 스님은 선재동자가 만난 두 번째 선지식이자, 십주^{十住}의 초발심 주 선지식이란다. 부처님이 되고 싶다는 발심을 내고, 열 가지 믿음을 모두 성취하면 발심주가 되는데 그때 지혜가 밝아지고 긴 밤을 걷고 있던 것 같은 어둠이 깨지기 때문에 승락^{勝樂}이라고 부른다. 뛰어난 행복, 꼭대기에 오른 기쁨 같은 의미이지.”

“덕운 스님이 묘봉산 꼭대기에 계셨던 건 그래서였을까요?”

“호호호,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마음이 산과 같이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지혜가 생겨나니까 말이다. 덕운 스님은 이름도 덕운^{德雲}이었으니, 덕을 구름처럼 갖추었다는 뜻... 선재도 덕운 스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안목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럼 덕운 스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고 세 번째 선지식한테 가보라고 하셨어요?”

“아니~ 선재동자에게 그때부터 선정에 들어 마음을 안정시키라고 하셨단다. 선정으로 지혜광명을 얻어야 일체 중생을 구하는 원을 세울 수 있고, 그 거룩한 원을 그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선정과 지혜의 염불삼매문 21개를 선재동자에게 주셨단다.”

선재동자의 질문과 선지식들의 답변에 숨어있는 공통점

“생각해보면 선재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수십 년 동안 만나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단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을까?’였는데, 나중에는 질문 하나가 더 생겼지.”

“뭘데요?”

“‘부처님~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였단다. 호호~ 선재동자도 힘들었던 거겠지?”

“하하하! 선재동자가 이해돼요!”

“그런데, 선재동자와 선지식들의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었단다. 어쩌면 그 질문이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겠구나. 알려주라?”

“네! 그 공통점을 알면 더 빨리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첫째는 깨닫고 싶어 하는 마음-발심의 계기가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할까, 저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선지식을 찾아 조연을 구하는 선재동자



상원사 문수전 선재동자

해주세요. 네?!”

출처

- 현대불교,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 「선재, 스스로 보살로 나아가다」 2017.5.4
- 불교신문, 원옥스님 공주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 교수,
[행복으로 가는 화엄경] (52) 입법계품(入法界品) ⑤, 2019.2.20.
- 법정 스님, 『스승을 찾아서 : 화엄경 입법계품』, 동쪽나라, 2002

정진회 대학에서 문예창작학을 전공하고, 19년째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다. <KBS 다큐공감> <KBS 체인지업 도시탈출> <EBS 요리비전> <EBS 하나뿐인 지구> 등에서 일했고, 책 <대한민국 동네빵집의 비밀>을 출간하기도 했다. 사람 이야기와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불자로 중대사자암 삼보일배에 참가하면서 오대산과 인연이 닿았다.

자신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있었다는 것이지. 둘째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 하는 분별심이 없었다는 것이라. 모든 선지식이 수십억 겁 전부터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아닌 세상을 위한 공덕을 쌓아왔다는 것이지. 오로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을 섬기고 깨닫게 하고자 발심 했던 거야.“

“할머니, 너무 재미있어요. 상원사 도착하려면 조금 더 가야하니까, 선재동자 이야기 하나 만 더

토요 가행정진 법회 양력 초하루법회

법회 일자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저녁 6시

법회 장소 오대산 중대 사자암/적멸보궁

차량 운행·인솔자

[서울] 수다나해 청해림 010-2056-5508
조계사 11:30, 봉은사 12:00, 죽전 13:00

[부산] 소다나해 수연행 010-3851-1064, 명륜동 지하철역 08:00
금강정진회 사무실 051-635-7878, 인솔자 차철표 010-2300-7878
부산진역 6시, 교대 8번 출구 6시 30분, 만덕육교길 6시 40분

적멸보궁 초하루 법회

법회 일자 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9시

법회 장소 오대산 중대 사자암/적멸보궁

차량 운행·인솔자

[서울·경기] 한불회(서울) 청아연 010. 2299. 4296
청량회(분당, 용인수지, 수원) 자연향 010. 5357. 1370
마야회(분당, 수지, 죽전) 지혜행 010. 5272. 8771

[강릉] 강릉신도회 010. 2057. 9748, 택시부 광장 07시
* 운행시간이나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팀장님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 살아 숨쉬는 오대성지 중대사자암 적멸보궁

중대사자암 종무소 T. 033. 333. 0468 F. 033. 332. 7881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211-80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타야 흠”

광명정진 철야법회

법회 일자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밤 8시

법회 장소 오대산 상원사

차량 운행·인솔자

[서울] 인솔자_지혜심 010-8776-2552

1호차 조계사 오전 11시 10분, 2호차 봉은사 낮 12시

[안양] 인솔자_사리자 010-4017-7653

안양 선진병원 9시 40분, 법계역 6번 출구 10시

농수산물앞 10시 10분, 죽전고속도로경유정거장

(1호차) 안양 선진병원 8시 40분

(2호차) 광명 시민체육관앞 8시 20분 - 법계역 6번출구 9시 /

농수산물앞 9시 10분 / 죽전고속도로 경유정거장 9시 30분

[대구] 인솔자_보련화 010. 3827. 5769, 동아쇼핑 앞 오전 9시

[창원·함안] 인솔자_법성화 010. 7317. 2351

창원 불곡사 5시 30분, 창원역 6시, 함안군 칠원읍 6시 30분

[부산] 대경 관음회 인솔자_청련화 010. 8266. 0012

1, 2, 3호차 범일동 국민은행 앞 오전 6시 30분

그린광명회 인솔자_항상장 010. 8557. 3574, 4호차 부산시청 6시 30분

[수원] 인솔자_대지행 이하윤 010-8712-1086

병점역 7시 출발, 수원역 7시 10분, 북문(장안문) 7시 20분

KT(동수원) 7시 30분, 영통입구 7시 40분

[강릉] 인솔자_다람보살님 010-6371-6133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211-14
종무소 033. 332. 6666, 6060 팩스 033. 333. 5833
문수성지 광명도량 오대산 상원사

Odaesan Meditation Village
오 대 산 자 연 명 상 마 을

명상법회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옴뷔OMV는

내가 나의 삶에 선물하는 자유로운 플럼프이며,
명상으로 편안하고 자연의 기운으로 건강해지는
Healing Stay입니다.

숲에서 탄생하여 하늘로 피어오르는 고요한 땅,
사람과 자연이 바람의 빛깔로 모인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물든 모든 습관들을 지우고
행복을 담아낼 귀한 인연을 명상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쪽의 맑은 기운을 품은, 숲을 닮은 수행자!
햇빛처럼 빛나는 바로 당신입니다.



입재. 2019년 8월 10일 토요일 15시 **회향.** 2019년 8월 11일 일요일 12시
장소. 오대산 자연명상마을(OMV)
프로그램. 경청명상, 자애명상, 걷기명상, 치유요가
동참비. 1인 5만원(2인 1실 사용)
문의.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033. 333. 6500 / 월정사 종무소 033. 339. 6800

화엄오만진신 조성 불사 권선문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얻으신 직후, 3·7일 동안 깨침의 정수를 말씀하신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너무나 위대하고 경지가 높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아함경(아가마-阿伽摩: agama)부터 차례로 단계를 높여가며 가르침을 설해주시게 되는데 마치 현대의 4차 산업을 얘기해 주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을 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국사 급에 해당하는 대국통 자장율사께서는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서 642년 문수보살을 친견하셨습니다. 이때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 등의 성물(聖物)과 『화엄경』의 가르침을 전수 받은 뒤, 신라의 동북방에도 문수 성지가 있으니 찾으라는 부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귀국 후 신라에서 찾아진 곳이 바로 평창의 오대산입니다. 자장율사는 오대산 중대에 부처님의 뇌사리를 봉안하고, 월정사의 기틀을 확립합니다.

이후 태종무열왕 즉 김춘추의 손자인 제31대 신문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형제들 간에 왕위 계승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싫어서 덕이 있는 왕자 보천과 효명 형제는 멀리 오대산으로 은거하여 수행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오대산 중대에서 1만 문수보살을 친견하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이후 차례로 동대에서는 1만 관세음보살,

남대에서는 1만 지장보살, 서대에서는 1만 대세지보살, 북대에서는 1만 미륵보살을 뵈게 됩니다. 보천과 효명은 이들 보살님께 차 공양을 올리고 일일이 절하며 예배해 모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주에서는 신문왕의 장남인 효소왕이 실정하여, 재위 10년 만에 폐위되고 새로운 군주를 물색하게 됩니다. 이때 효명의 덕행과 불보살의 가피가 알려져 귀족의 추대로 등극하는데, 이분이 바로 통일신라 최대의 성군으로 평가되는 제33대 성덕대왕입니다. 성덕대왕 하면 아들과 손자가 대왕의 덕을 기려 주조한 성덕대왕신종, 즉 에밀레종으로 유명합니다. 또 성덕대왕의 아들로는 중국불교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평가받는 김지장(김교각)과 사천성 정중선파의 시조이자 중국에서 500나한 중 한 분으로 평가되는 정중무상스님이 있습니다.

신라와 불교의 황금기를 구가한 성덕왕은, 경주를 인구 100만의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시키는 놀랄만한 위업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고 신라가 번영을 구가하는 것이 오대산의 불보살님의 가피라고 생각하여, 재위 23년째가 되는 724년 친히 행차하여 상원사를 창건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오대산과 월정사의 대체(臺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대산불교의 발전은 국가를 흥성시키는 동시에, 오대산 5만 불보살님의 존재는 개인의 성공과 행복에 더 없는 공덕과 복덕의 가피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이성계가 오대산 중대 사자암을 자신의 원찰로 삼고, 상원사를 수륙재 사찰로 지정한 것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성종실록』 권261의 1492년 기록에는 “오대산과 금강산에 사찰이 매우 많고, 승려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즉 조선 초기까

지도 오대산은 금강산과 더불어 최고의 기도 도량으로 평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런 유서 깊은 성지인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에 입각한 5만 보살의 모습을 나무로 조각하여 모시는 대불사를 단행합니다. 월정사의 적광전은 『삼국유사』 「오류성증」조에서, 신라 최고의 명당으로 평해진 유일한 장소입니다. 성덕대왕이 발복하고, 『삼국유사』에서 최고의 길지로 평가된 적광전에 모셔지는 5만 불보살님의 조성에 동참하여, 나와 가족의 성공과 행복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눈이 먼 제자 아나율의 가사를 기워주시면서, ‘복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보시로 큰 공덕을 만들어,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반드시 성취되는 가피와 위업을 달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5만 불보살의 위신력과 함께 하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행복으로 충만할 것이며, 작은 보시도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참 금액

- 1인 : 10만원
- 108 설판 동참금(가족) : 500만원
(설판 제자 탕화에 이름을 올려 드립니다.)

회향 법회

2022년 10월

동참 문의

원주실 033. 339. 6600~1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법회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래의 대비신력과 위신력을 담은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천수경에 나오는 가장 긴 진언으로, 그 신통묘용은 실로 뛰어납니다. 석가모니부처님 불뇌사리를 봉안한 적멸보궁과 오만불보살님의 진신이 상주하는 오대산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성으로 독송하여, 일체의 마장과 장애를 소멸하고 무상보리심을 증득해 불보살님의 가피를 몸소 체득하는 수승한 인연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회 일시 佛記 2563(2019)년 8월 17일 토요일 오후 8시

법회 장소 오대산 월정사 대법륜전

법회 문의 월정사 포교국 033. 339. 6617, 010-2019-5846

차량 운행 |1호차| 조계사 : 오후 1시 / 조계사 앞

죽전 : 오후 1시 40분 / 경부고속도로 버스 정류장 앞

|2호차| 신도림역 : 오전 11시 40분 / 2·3번 출구, 테크노마트 앞

잠실역 : 오후 1시 / 4번 출구, 롯데마트 앞

법회 일정

20:00 ~ 21:00	입재, 주지스님 법문
21:30 ~ 23:30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23:30 ~ 00:30	죽 공양 및 휴식
00:30 ~ 02:00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02:20 ~ 04:00	신묘장구대다라니, 축원
04:30 ~ 05:00	새벽예불, 회향

스님과 아침 포행



TempleStay



시간_매일 아침 06:30~07:30

출발_템플스테이 사무실

대상_템플스테이 휴식형 참가자

문의_템플스테이 사무실 033-339-6606~7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번지 월정사 템플스테이
T. 033-339-6606~7 <http://woljeongsa.org/templestay>

[진부] 월정사 성보박물관

가이 브라운슈타인(Vn) & 김선욱(Pf) 듀오 리사이틀

2019. 8. 7(수) PM 2:00 월정사 성보박물관

루트비히 판 베토벤
L. V. BEETHOVEN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3번
E플랫장조 작품번호 12의 3

Sonata for Piano and Violin no. 3
in E flat major, op. 12 no. 3

I. Allegro con spirito
II. Adagio con molt' espressione
III. Rondo. Allegro molto

가브리엘 포레
G. FAURÉ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A장조 작품번호 13

Sonata for Violin and Piano no. 1 in A major, op. 13

I. Allegro molto
II. Andante
III. Allegro vivo
IV. Allegro quasi presto



가이 브라운슈타인 / 바이올린

이스라엘 태생의 가이 브라운슈타인은 하임 타우브와 핀커스 주커만을 사사했다. 어린 나이에 주목받으며 사이먼 래틀, 주빈 메타, 다니엘 바렌보임, 세운 비치코프, 클라우디오 아바도, 안드리스 넬손스 등의 지휘자와 함께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고, 예뮌 브론프만, 이매뉴엘 엑스, 유자 왕, 랑랑, 마우리치오 폴리니, 마르타 아르헤리치 등과 함께 리사이틀 및 실내악 무대를 만들고 있다. 그는 지난 10년간 함부르크 심포니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는 등 방대한 레퍼토리를 연구하며 여러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했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악장(2000~2013)과 베를린 국립음대 교수(2003~2007), 몰란트세크 페스티벌 예술감독(2006~2016)을 역임한 그는 현재 스페인 갈리시아에서 개최되는 '클라스크라스(ClasCras)' 페스티벌의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브라운슈타인은 현재 1679년에 제작된 프란체스코 루지에리의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



김선욱 / 피아노

2006년 리즈 국제 콩쿠르에서 콩쿠르 역사상 최연소 및 최초의 아시아인으로 우승했다. 런던 심포니, 런던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드레스덴 필하모니, 함부르크 NDR 필하모니,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NHK 심포니 등과 협연했다. 영국 런던 위그모어 홀, 런던 인터내셔널 피아노 시리즈, 프랑스 라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독일 루어 페스티벌 등 유럽의 가장 권위 있는 무대들에 꾸준히 초청받고 있으며 2014년에는 본머스 심포니와의 협연으로 BBC 프롬스 무대에 데뷔했다. 정명훈 지휘의 서울시향과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로 베토벤 협주곡 음반을 출시했으며 악첸투스 레이블로도 세 장의 독집 음반을 발매했다.

제 16 회 오대산문화축제

마음의 빚깁 소리공양대회

오대산문화축제에서 염불대회를 개최하여
붓다와 그 말씀을 찬탄공양하고 널리 알리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신심충만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시자격 개인부분 / 단체부분
* 개인·단체 중복 응시 가능

응시부분 전통염불 / 창작염불
* 염불은 정해진 시간(5분)에 맞춰 부분 발체, 편집 무방

접수기간 2019. 9. 23(월) ~ 10. 6(일)

접수방법 우편, Fax, e-mail 접수,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월정사 소리공양대회담당자
Fax. 033-332-6915,
E-mail. jinwonh14@hanmail.net

대회날짜 2019년 10월 13일(일) 오대산 월정사 특설무대

시상내역
• 대상 [1팀(명)] - 상금 200만원
• 금상 [1팀(명)] - 상금 100만원
• 은상 [2팀(명)] - 상금 50만원
• 동상 [2팀(명)] - 상금 30만원

문의방법 월정사 홈페이지(woljeongsa.org),
Tel. 033-339-6800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절
오대산 월정사

제16회 오대산문화축제 <마음의 빚깁>

나도 디자이너 문화재 캐릭터·이모티콘 공모전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오대산문화축제를 개최하며
참신하고 발랄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석조보살좌상, 상원사동종, 문수동자상,
적멸보궁 등 수많은 국보와 보물의 문화재가 오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사는 세조와 관련된 설화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남들은 생각하지 못한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문화재 캐릭터·이모티콘 제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젊은 감각에 맞게 재해석하여
선조들의 세련미와 접목해 새로운 문화재가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접수 기간

2019. 9. 23(월) ~ 10. 6(일)

접수 방법

E-mail(jinwonh14@hanmail.net) 접수

발표 날짜

2019년 10월 13일(일)
월정사성보박물관 세미나실

대상 문화재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월정사석조보살좌상,
상원사동종, 문수동자상 등 오대산 문화재와
비천상, 상원사고양이 등 오대산 캐릭터

발표 방법

캐릭터 및 이모티콘 성격, 활용방안 설명

시상 내역

[대상(1명(팀))]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1명(팀))]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4명(팀))]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공모 규정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됩니다.
타 공모전 수상작의 출품은 금지하며,
제출내용이 모방작품일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고 수상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월정사 홈페이지(woljeongsa.org)
Tel. 033-339-6800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절
오대산 월정사

사중소식

- 7월 1일(월)** 출가학교는 문수선원에서 54기 출가학교 입학식을 봉행하였습니다.
- 7월 4일(목)** 적광전에서 백중 초재를 지냈습니다.
- 7월 7일(일)** 적광전에서 신중재일 화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 7월 11일(목)** 수광전에서 백중 2재를 봉행하였습니다.
- 7월 18일(목)** 수광전에서 백중 3재를 봉행하였습니다.
- 7월 20일(토)** 대법륜전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 7월 25일(목)** 수광전에서 백중 4재를 봉행하였습니다.
- 7월 27일(토)** 대법륜전에서 오대광명포살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 7월 31일(수)** 문수선원에서 6기 청년마음출가학교 입재식을 봉행하였습니다.

* 주소 변경, 배달 사고 등 「오대산향기」에 대한 문의 사항과 특별히 법보시를 하고 싶은 단체, 이웃이 있으시면 오대산 향기 편집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기구독 법보시 금액 1년 회원 : 2만 원 / 10년 회원 : 20만 원

정기구독 법보시 신청 월간 오대산 향기 편집실

전화. 033) 339-6800 / Fax. 033) 332-6915

(우)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월정사 종무소

홈페이지. woljeongsa.org

법보시 신청 계좌번호 농협 355-0019-0684-13 (예금주 : 월정사)

법보시 동참 불자님 1년 회원 : 류정훈, 김영란님

오대산향기
법보시 안내

8월

佛紀 2563(2019)년

오대산 월정사 주요행사

오대산 적멸보궁 ☎ 033. 333. 0468

8월 3일(수), 30일(금) 초하루법회

월정사 ☎ 033. 339. 6600

- 8월 1일(목) 만화대선사 98주년 탄신다례재(적광전, 14:00)
백중기도 5재(수광전, 09:30), 칠석기도 입재(삼성각)
- 8월 2일(금) 여름수련회 1차
- 8월 5일(월) 신중재일 화엄법회(적광전, 09:00)
- 8월 7일(수) 수능기도 입재, 칠석기도 회향
평창대관령음악제 찾아가는 음악회(월정사성보 박물관, 14:00)
- 8월 8일(목) 백중기도 6재(수광전, 09:30)
- 8월 9일(금) 여름수련회 2차
- 8월 15일(목) 기해년 하안거 해제, 백중기도 회향
- 8월 16일(금) 여름수련회 3차
- 8월 17일(토)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법회(대법륜전, 20:00)
- 8월 24일(토) 오대광명 포살법회(대법륜전, 14:00)

상원사 ☎ 033. 332. 6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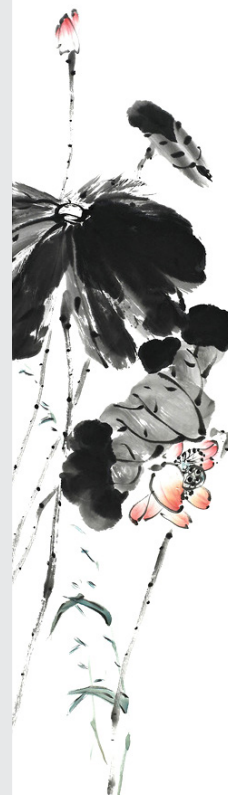
- 8월 1일(목) 초하루법회
- 8월 4일(일) 문수재일 지혜법회, 극락왕생기도 입재
- 8월 7일(수) 수능백일기도 입재
- 8월 15일(목) 우란분절 하안거 해제, 극락왕생기도 회향
- 8월 24일(토) 광명정진 철야법회
- 8월 30일(금) 초하루법회

중대사자암 ☎ 033. 333. 4729

- 8월 1일(목) 초하루법회, 칠석기도 입재
- 8월 3일(토) 토요가행정진법회
- 8월 7일(수) 수능백일기도 입재, 칠석기도 회향
- 8월 15일(목) 백중기도 회향
- 8월 30일(금) 초하루법회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OMV ☎ 033. 333. 6500

- 8월 10일(토) 명상법회(동림선원)
- 8월 17일(토) 함께 걸어요



**매월 음력 5일,
신중재일 화엄법회에 참석합니다**

일시 佛紀 2563(2019)년 8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월정사 적광전

기도비 30,000원

문의 원주실 (033) 339-6600~1

오대산 월정사

여/름/수/련/회



1차 8월 2일 ~ 4일

2차 8월 9일 ~ 11일

3차 8월 16일 ~ 18일



인생에 한번쯤... 삼보일배

- 대 상 템플스테이 휴식형 참가자
- 일 시 8월 3일(토), 10일(토), 17일(토)
- 문 의 템플스테이 사무실 033. 339. 6606~7



템플스테이 문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번지

T. 033-339-6606~7 <http://woljeongsa.org/templestay>